

IRS NEWS

No. 29

2 0 1 1
SEPTEMBER
WWW.RUS.OR.KR



칼리닌그라드 칸트섬의 구(舊) 주교좌 성당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89 국제지역연구센터 연구동 412호
89 Wangsan-ri, Mohyeon-myeon, Cheoin-gu, Yougin-si, Gyeonggi-do, 449-791
TEL 031-330-4852 FAX 031-330-4851

IRS NEWS

No. 29

- 소장 인사말 3
- 학술행사 4
- 학술 및 교육사업 7
- 인터뷰 8
- 단행본 및 학술지 출간 10
- 연구소 동정 12
- 학술행사 공고 15



4-5

러시아연구소-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동서사회연구소 제1차 공동국제학술회의



12-13

제1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회



13

대학생 러시아어 서머스쿨

IRS Newsletter는
연 2회 발간되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의 소식지입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학제현 여러분!

유례없는 폭우로 유난히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불기 시작한 서늘한 바람이 어느새 가을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이 가을에 여러분께서 준비했던 여러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길 기원합니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도 2011년을 시작하며 세웠던 다양한 계획들을 착실하게 진행시키며 지난 6개월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련 해체 20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그간의 러시아 내 체제전환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국과 러시아, 세계화를 만나다: 변화, 도전,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러시아와 한국 사회가 겪은 새로운 정치경제 체제와 사회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글로벌 시대에 한국과 러시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양국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학술활동 외에도 학문후속세대 및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어 토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실용적인 언어구사능력의 함양에 중점을 두고 러시아어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격려하며 동시에 러시아어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2주 동안 원어만 강사들과 24시간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는 ‘2011 대학생 러시아어 서머스쿨’을 개최하였습니다. 러시아어를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러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했던 첫 번째 시도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처럼 초심을 되찾고 다시 시작하는 때이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남은 1년을 잘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연구소의 입장에서는 HK 연구사업의 새로운 일 년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러시아연구소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콜로키움, 초청강연, 학술회의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소련 해체 20년을 정치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체제 이행기 러시아 정치공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러시아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이라는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작년 여름 HK 연구진이 직접 방문했던 러시아연방 북서관구에 대한 ‘러시아연방총서’와 해당 지역에 대한 좀 더 심도 있고 수준 높은 ‘학술연구총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의 사회적 기여를 주도할 수 있는 시민문화강좌 등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가 2011년의 남은 기간 동안 여러 사업과 연구를 잘 마무리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동학제현의 지속적인 조연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소장 **홍 완 석**



초청강연회 & 학술행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러 지방정부 국제교류 활성화 세미나 공동주최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은 2011년 4월 1일 한국관광공사 3층 T2아카데미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한·러 지방정부 국제교류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태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 세미나에서는 최재근 충북 자문대사의 축사와 홍완석 러시아연구소 소장의 초청강연에 뒤이어 한·러 지방교류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충청남도과 부천시 실무자의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 후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은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답변에 나선 김진만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과 인천시 국제교류센터 조미령 과장은 무엇보다도 러시아에 진출하기 전에 전문기관을 통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밀도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국내 러시아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이와 같은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스트리코프(A.S. Vostrikov) 주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은 초청강연에서 향후 러시아 측(대사관, 무역대표부, 지방정부 실무자 등)도 초청하여 실질적인 한·러 지방정부 국제교류 활성화 세미나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HK 연구사업단 제1차 공동국제학술회의 개최 한국과 러시아, 세계화를 만나다: 변화, 도전, 미래

2011년 4월 8일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사회학부 동서사회연구소와 함께 "한국과 러시아, 세계화를 만나다: 변화, 도전,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서울캠퍼스 BRICs 국제포럼장에서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는 동서사회연구소 소장인 림마 탄갈리체바(R. K. Tangalicheva), 블라디미르 일린(V.I. Ilyin), 엘레나 카푸스트키나(E.V. Kapustkina)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교수들과 최우익, 김혜진 등 HK 연구진, 노리오 호리에 일본 토야마대학 교수, 윤인진 고려대 교수,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성건 서원대 교수 등 총 18명의 학자들이 참가하였다.



글로벌화, 탈경계화 시대에 한국과 러시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와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양국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양국 중앙과 지방은 어떠한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동안 세계화 시대에 당면한 러시아와 한국의 사회문제를 러시아, 한국, 일본 학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이번 학술회의는 그러한 논의의 공백을 메우려는 첫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와 한국 학자들이 급변하는 양국 사회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오해, 편견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양 연구소는 연례 공동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양국 학계의 연구동향을 나누고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이리나 부시기나(I.M. Busygina) 교수 초청 강연

2011년 5월 27일 러시아연구소는 서울캠퍼스 BRICs 국제포럼장에서 이리나 부시기나(I.M. Busygina)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었다. “Interrelations Between Center and Periphery in Russia: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강연회에서 부시기나 교수는 러시아의 환경 개발은 전통적으로 ‘중앙-주변’ 모델에 부응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하고, 러시아에서 진행되어 온 세계화 및 지역화 과정은 이러한 지역 개발의 전통적 방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하였다. 부시기나 교수는 이러한 전통적 개발 방식을 혁파할 유일한 가능성은 정부의 현대화와 연방 모델로의 이행에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이러한 이행이 러시아의 환경적 불균질성과 그 영토의 규모에서 비롯되는 여러 위험을 수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시기나 교수의 강연은 러시아 지역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 중 하나였던 ‘중앙-주변’의 문제점을 짚고 이러한 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학 연구 전반에 유의미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수잔 크레이트(S. Crate) 교수 초청 콜로키움

2011년 5월 30일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은 용인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에서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수잔 크레이트(S. Crate) 교수를 초청하여 “시베리아 사하 공화국의 기후 및 환경변화와 원주민 생활양식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수잔 크레이트 교수는 이 강연에서 시베리아 사하 공화국의 빌류이 촌락에서의 펠드워크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시베리아 지역 촌락 공동체들이 급속히 변화한 환경 때문에 어떠한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크레이트 교수는 강력한 지역 리더십을 통해 다변화된 지역 경제, 공동체, 건강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 특유의 전통적 지식과 토지 및 자원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 이들의 당면한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크레이트 교수의 강연은 지역연구를 표방하고 있는 HK 연구사업단의 연구방향과 부합하는 실질적 학문적 교류의 장이었을 뿐 아니라 환경과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성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



한국계 러시아인 소설가 아나톨리 김 출판 기념회

2011년 6월 2일 러시아연구소와 한-러 문화포럼의 공동 주관하에 한국외대 신본관 13층 스카이라운지에서 한국계 러시아인 작가 아나톨리 김의 자전 에세이 『나의 지난 시절』 한국어판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1939년 카자흐스탄에서 출생한 아나톨리 김은 고리키 문학대학 졸업 후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러시아 문단의 대표작가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는 러시아 정부가 수여하는 ‘모스크바 예술상’ (1993), 이탈리아 펜네 시 문학상(2001), 톨스토이 재단의 ‘야스나야 폴라나 문학상’ (2005) 등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주요 작품들은 전 세계 28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 아나톨리 김의 자전 에세이는 정체성 문제에 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으며 방황하는 예술혼이 작가의 정신적 고향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로 대단원을 맺고 있다. 1990년대에 집필한 이 자전 에세이는 러시아에서 상당한 반응을 얻었고, 우리 글 번역으로 <문학사상>에 연재되어 한국 독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박병환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 초청 콜로키움



2011년 7월 28일 러시아연구소는 박병환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를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용인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에서 열린 이번 콜로키움에서 박병환 총영사는 “한민족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참여와 동북아 세력 균형”이라는 주제를 통해, 역사적으로 동북아의 정체 변화에 극동시베리아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박병환 총영사는 러시아와 실질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논의는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하되 행동은 민첩하고 용의주도하게 해야 하며, 둘째, 러시아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언론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과 쌍방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비자면제 등 교류활성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며,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연결되는 러시아 주요 도시마다 우리의 총영사관과 KOTRA 사무소가 개설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제5차 해외명사 초청강연회 개최

2011년 8월 2일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은 서울캠퍼스 국제관 203호에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슬라브어문학과 앤드류 와호텔 교수(A. Wachtel,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아메리카 대학교 총장 겸임)를 초청하여 “탈민족주의 시대의 러시아 민족문학”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슬라브어문학과 유고슬라비아 문화에 정통한 와호텔 교수는 민족문학에 대한 정의와 러시아 민족문학의 현주소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열띤 강연을 펼쳤다. 와호텔 교수는 오늘날 정보, 기술, 인력의 탈경계적 교류와 순환 시대에 러시아의 문화 생산물은 러시아가 문화적으로 독특한 민족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러시아 민족문학 개념도 탈경계, 탈영토 시대,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엄격한 규정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시시켰다.



와호텔 교수는 터키 출신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르한 파뮌’의 <눈>이라는 소설이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어로 쓴 소설보다 더 러시아적인 민족적 요소들을 담지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러시아 민족문학 개념의 변화에 대해 설득력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2011년도 1학기 특강

- ▶ 주최 _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 학과,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 ▶ 후원 _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일 자	내 용 / 발표자	장 소
2011. 03. 04.	제1강: 러시아· CIS 시장 일반개황과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제2강: 러시아· CIS 시장 진출 전략 / 나윤수 (KOTRA 프로젝트 지원처장, 전 CIS지역 본부장)	대학원 411호
2011. 03. 11.	제1강: 제정러시아 시대 한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제2강: 러시아 혁명과 한국독립운동 /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대학원 411호
2011. 03. 18.	제1강: 푸틴 2012년 대통령 권좌에 다시 오를까? 제2강: 러시아 정당체제의 과거, 현재, 미래 /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대학원 411호
2011. 03. 25.	제1강: 러시아 경제 현황과 전망 제2강: 한· 러 경제협력의 기회와 제약성 / Pavel Leshakov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 아시아· 아프리카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 경제학 교수)	대학원 411호
2011. 04. 01.	제1강: 러시아 문화의 예코시스템과 문학의 정신사적 특징: 러시아적 전통 제2강: 러시아 문화의 예코시스템과 문학의 정신사적 특징: 서구의 영향에 대한 반응 / 김현택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통번역대학원장)	대학원 411호
2011. 04. 15.	제1강: 러시아의 정치경제 체제와 국가 성격 제2강: 포스트소비에트 정치경제 체제변혁의 상이한 경로 / 김태환 (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사업부장)	대학원 411호
2011. 04. 22.	제1강: 최근 러시아 항공산업의 구조개혁 현황 제2강: 에어로플로트의 비즈니스 현황과 전략 / Sergei Salov (아에로플로트 서울 지사장)	대학원 411호
2011. 04. 29	제1강: 현대 러시아어의 어휘체계 특징 제2강: 현대 러시아어의 문체적 특징 / 유학수 (선문대 교수)	대학원 411호
2011. 05. 06	제1강: 소련체제의 전개와 붕괴(1917~1991) 제2강: 현대 러시아 국가와 시민사회 / 박수현 (경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국슬라브학회 회장)	대학원 411호
2011. 05. 13.	제1강: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과 정책 - 러시아를 중심으로 제2강: 러시아의 대북정책과 정치경제 관계 / 여인곤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대학원 411호
2011. 05. 27.	중앙-지방 관계, 러시아 지역주의와 정체성, 글로벌화와 지역주의 / Irina Busygina (러시아 MGIMO)	대학원 411호
2011. 06. 03.	제1강: 러시아 음악의 태동과 서양 음악의 유입 제2강: 민속음악과 낭만음악 / 남완 (성악가)	대학원 411호

콜로키움

103차 발표 2011.3.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지역연구를 위한 분석 단위: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섭”
- 양오석 (한국외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도교수)

104차 발표 2011.4.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공공외교와 한-러 관계”
- Aleksey Maloletko (러시아 외무성 국제협력청 한국 대표부)

105차 발표 2011.5.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시베리아 사하 공화국의 기후 및 환경변화와 원주민 생활 양식의 변화”
- Susan Crate (George Mason University)

106차 발표 2011.6.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두 도시 이야기: 모스크바와 타시켄트에서 문화를 상상하고 실천하기”
- 남영호 (서울시립대학교 HK 연구교수)

107차 발표 2011.7.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한민족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참여와 동북아 세력균형”
- 박병환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

108차 발표 2011.8.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핀-위그르 세계에서의 민족정치적 분쟁들: 러시아 마리엘 공화국의 사례”
- Aleksandr Eremov (모스크바 국립대 국제학술관계국 선임연구원)

지난 5월 본 연구소의 전임 소장이자 현재 본교 명예교수인 장실, 이종진 교수의 저·역사가 나란히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문화관광부는 매년 출판활동을 고취하고 지식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퇴임 후에도 여전히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바쁜 두 분을 한 자리에서 만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장실 교수와는 6월 말 연구소 회의실에서, 이종진 교수와는 7월 초 분당 자택 근처에서 따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간 계속되던 무더위를 식혀주는 반가운 단비가 내리던 날에 장실, 이종진 두 분을 각각 만났다.



『이콘과 문학』의 저자 장 실 교수

제성훈: 저서 『이콘과 문학』이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평생에 걸친 선생님의 이콘과 문학 연구 성과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국내에 거의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책은 상당한 학문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계기로 이 책을 구상하고 집필하시게 되었는지요?

장 실: 대학원 시절 고대 러시아문학을 공부하면서 비잔틴 문명, 정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비잔틴 문명과 정교 문화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콘입니다. 특히 ‘성자전’이라는 교회문학 장르의 줄거리, 이야기들은 모두 이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콘과 문학을 연관시킨 이 책의 구상은 대학원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문학에는 전체를 관통하는 혼, 정신과 같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빈번하게 문학적 모티프로 등장하는 것이 이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콘은 단순한 조형예술의 의미를 넘어, 종교적 가치를 상징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대문호인 푸쉬킨, 고골, 도스토예프스키, 안드레이 피체르스키도 자신의 작품에서 이콘을 주된 모티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제성훈: 러시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이콘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장 실: 이콘은 러시아 역사와 종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러시아의 수많은 교회, 성전, 수도원 등은 반드시 신의 계시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계시는 대부분 이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블라디미르 성모 이콘이 수도사의 꿈에 나타나 계시를 주면, 수도사가 건축기사들을 불러 그 자리에 교회나 수도원을 건립하는 식이었습니다. 또한, 대대로 독실한 정교도였던 러시아 황실은 정치를 할 때는 항상 총대주교의 조언을 들었고, 전쟁에 출정할 때도 깃발보다 ‘으뜸 이콘’을 앞세

우게 했습니다. ‘으뜸 이콘’이란 신의 계시를 받아 세워진 성전에 모시는 교회나 지방을 대표하는 이콘을 말합니다. 이렇듯 러시아 역사에서 이콘은 상징성과 정신적 지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성훈: 정년퇴임을 하신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모교, 특히 연구소에서 보내신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장 실: 1978년 노어과에서 강사를 시작하면서 연구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연구소의 인적 구성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학제간 공동연구를 위해 동완, 김학수 등 노어과 선생님들은 물론 김덕, 안병만, 한홍순 등 다른 학과의 선생님들도 적극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원고독촉을 피해 다니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한, 1980년대 말에는 학교가 제공한 약간의 지원에 얹힌 돈을 보태어 자료수집과 현지답사를 목적으로 동구권을 두 차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면 행복한 기억입니다.

제성훈: 러시아연구소의 후학들과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장 실: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본교 러시아연구소는 노어과의 ‘지킴이’였습니다.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며 또 살찌우고, 선후배 간 유대를 강화하는 정신적 공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내실 있게 학문적 깊이를 심화하여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제성훈: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콘은 무엇입니까?

장 실: 『이콘과 문학』의 표지사진에도 쓰인, 15세기 수도사 루블료프에 의해 제작된 성삼위일체 이콘입니다. 삼위, 즉 세 위격(성부, 성자, 성령)은 하느님의 본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삼위일체 이콘은 기독교 교리의 근본, 본질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이콘은 모든 이콘들 중의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여성』의 역사 이종진 교수를 만나다.

제성훈: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역사 『도스토예프스키와 여성』이 지난 5월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년퇴임 후에도 학문적 열정을 간직하시고 여전히 왕성한 저술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도스토예프스키의 삶과 문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오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요?

이종진: 저는 전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신적으로 황폐했던 시기에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내일에 대한 희망 없이 방황했던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유일한 정신적 탈출구가 되었던 것이 바로 문학이었습니다. 오래전 한 책방의 낡은 서가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읽었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도시 속에서 분화된 인간, 그 인간이 겪는 정신적 불안, 초조, 공포, 그리고 소외와 심리의 문제를 예리하게 파헤친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인간학자입니다. 그의 작품을 접하는 순간 새로운 인간이 되고, 또 다른 존재의 세계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를 감히 위대한 정신의 혁명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도스토예프스키에 한껏 매료되어 마음의 탈출구를 찾게 되었고, 그의 작품을 읽고 또 읽게 되었습니다.

제성훈: 이번에 번역하신 『도스토예프스키와 여성』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생애를 세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 탐구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번역하고자 마음먹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진: 문학에서 작가연구는 중요하며, 작가의 사생활 연구는 더욱 더 중요합니다. 모든 작품은 작가의 분신이자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항상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따라서 작가가 사랑했던 여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작가와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작가의 작품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작품 속에서 여러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1920년까지 도스토예프스키의 사생활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전기물들이 출판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마르크 슬로님의 ‘도스토예프스키의 세 사랑(이 책의 원제목)’입니다. 이 책에서는 두 번의 결혼, 한 여자와의 연인 관계를 중심으로 그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객관적 사실과 증인을 토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생전에 작가와 친하게 지냈던 마이코프, 스트라호프, 브랑겔 등과의 편지, 문호의

아내와 딸 그리고 형의 증언, 여러 지인들의 회상기 같은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학자적 엄밀성을 견지하며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전기기 아니라 작품 연구의 필독서로서 전공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책을 출판하면서 저 역시 세 여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의 원본을 건네준 러시아인 여교수이고, 두 번째는 번역된 원고를 읽고 출판사를 소개해준 한국인 여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편집자입니다. 이 얘기를 당초 편집후기에 쓰려고 했었는데, 뒤늦게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을 전하게 되었네요.

제성훈: 모교에 계시던 시절을 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종진: 먼저 1989년 러시아를 처음으로 방문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까지 러시아문학을 연구해왔지만, 생전에 학문적 고향인 러시아 땅을 밟을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러시아 땅을 밟았을 때의 감동은 실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2001년 본교에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던 때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부총장이었던 저는 학위 수여를 주관하면서 그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말 한시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러시아의 문인들과 문학적 인사들을 만난 것도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프투센코, 라스푸틴, 잘리긴 등과 같은 유명한 작가들, 그리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러시아 어문학분과 위원장 첼리셰프 박사, 고리키 세계문학연구소의 쿠젤린 부소장, 레프 톨스토이의 직계인 니키타 톨스토이와도 교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푸쉬킨의 자취를 찾아서 그들의 박물관, 영지, 묘역 등을 순례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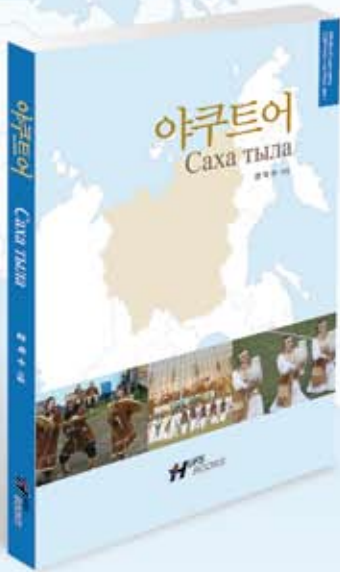
제성훈: 끝으로 러시아연구소의 후학들, 제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현재 인문학국(HK)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학이자,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과 같이 다른 연구소와 차별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정진한다면 세계적인 연구소로의 발전이 결코 꿈은 아닐 것입니다. 홍완석 소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쿠트어

강덕수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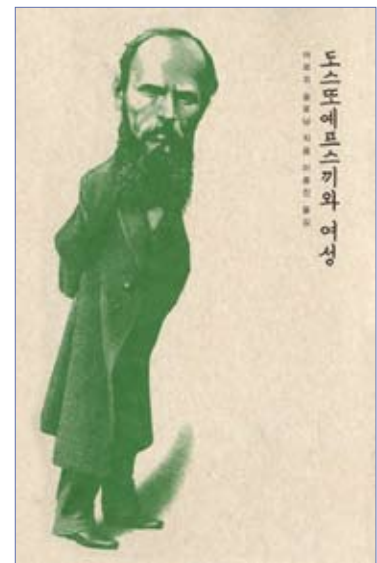


저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는 한국사하친선협회 회장, 사하공화국 동북연방대학교(구 야쿠츠크 국립대학교) 명예교수, 야쿠츠크시 사하-한국학교 설립자로서 한국과 러시아 사하공화국 간의 민간 친선교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노어음성학', '러시아어사', '러시아어 문장의 이해', '러시아어 발음과 구조' 등의 많은 저서를 집필한 강덕수 교수는 최근 시베리아 원주민 언어인 야쿠트어와 에벤키어에 관심을 가지고, 계통론적인 관점에서 한국어와 비교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 연구를 바탕으로 이번에 발간한 '야쿠트어'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시베리아 민족 언어에 대한 문법서이다. 한국어 기원을 연구하는 계통론 학자들이나 시베리아 소수민족 언어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책이다.

도스토예프스키와 여성

이종진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명예교수)

이 책의 역자인 이종진 교수는 러시아 학술원의 명예 문학박사이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동 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소장, 한국노어노문학회 회장, 한국 슬라브학회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오랫동안 러시아 문학을 연구하고, 다양한 러시아 문학작품을 번역해 온 이종진 교수는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를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또 한편의 책을 번역하였다. 1953년 출판된 마르크 슬로님의 책 '도스토예프스키와 여성(원제: 도스토예프스키의 세 사랑)'은 대작가와 그의 인생을 같이 했던 세 여자와의 관계를 다룬 전기물이다. 그 외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대에 섰던 순간, 시베리아 유형, 간질 발작, 외국 도피 생활, 도박벽 등 대문호의 굴곡진 삶을 통해 그와 그의 인생관, 문학관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지난 5월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다.





◎ 2011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이 책은 한국의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온라인 주간 정보지 『Russia · CIS Focus』에 지난 1년 동안 투고된 글들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작년에 발간된 제1권에 이어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글들을 엮어 제2권을 발간하였다. 제2권은 2010년 러시아를 결산하고, 2011년을 조망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큰 시야로 러시아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발간 의미이다.



◎ 슬라브 研究 (제27권 1호 & 2호)

러시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슬라브 研究」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동유럽과 러시아 및 CIS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을 실고 있다. 연 2회 발간되던 「슬라브 研究」는 2011년부터 연 4회로 증편되었다. 지난 3월과 6월, 제27권 1호와 2호가 발간되었으며, 각각 5편, 7편의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들을 실고 있다. 「슬라브 研究」에 게재된 논문들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에서 볼 수 있다.



◎ Russia & Russian Federation

본 연구소는 HK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러시아 지역전문 매거진 Russia & Russian Federation을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2011년 3월과 6월, 1호와 2호가 발간되었다. 1호에는 7편의 연구노트와 함께 기획특집으로 노브고로드, 프스코프, 무르만스크와 같은 북서관구의 3개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리포트가 실렸다. 2010년 7-8월에 이 지역을 찾은 HK 연구진이 흥미로운 사진과 함께 이 도시의 사회문화적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2호에는 HK 연구진 11명의 연구노트와 2명의 초대논문이 실렸다. 김성희 머니투데이 국제부기자는 러시아의 실리콘벨리라 불리는 스킨코보에 대하여, 정세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 교수는 러시아 무슬림상징과 이슬람에 대하여 논문을 기고하였다. 이외 부담없이 읽을 수 있으면서도 유익한 「러시아어 Tips」, 「역사상식」, 「음식문화탐방」, 그리고 러시아의 다양한 지역을 소개하는 「가볼만한곳」이 정기적으로 연재되고 있다.

IRS NEW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와 MOU 체결



본 연구소는 2011년 3월 25일 서울캠퍼스 본관 908호에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와 학술협력 및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협정식에는 러시아의 한국학 권위자인 레샤코프(P.S. Leshakov) 한국학연구센터 소장이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 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양측은 앞으로 공동연구 프로젝트, 공동학술행사, 출판물 및 자료 교환,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의 상호 참여, 교환학생 및 연구인력 교류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법인 미르와 업무협정서 체결



러시아연구소는 2011년 4월 27일 서초동 로이어서 타워에서 법무법인 미르(대표: 배정환)와 업무협정서를 체결하였다. 법무법인 미르는 러시아·CIS 지역연구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러시아연구소에 지정기부금 형태로 정기적인 재정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고, 러시아연구소는 출판물 및 지역정보 제공, 계간지 Russia & Russian Federation에 고정칼럼 및 광고를 위한 지면 제공, 학술회의 패널 초청 등을 약속했다.

인천시 국제교류센터와 MOU 체결



2011년 4월 28일 본 연구소는 인천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인천국제교류센터와 협력 및 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양측은 인천시민의 국제화 의식을 높이고, 인천과 러시아 및 CIS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학술·문화행사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학문의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최우익, 제성훈, 장세호 HK 연구교수가 인천국제교류센터가 주최하는 시민강좌에 참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두 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공동 시민강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 개최

2011년 5월 20일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과 한국외대 노어과는 러시아 <루스키 미르> 재단 및 주한 러시아대사관과 공동으로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어 토론대회를 개최하였다. 1954년 한국외대에 노어과가 개설된 이래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 전국 16개 대학에서 31개팀(62명)이 참가 신청하였고, 이중 24개팀(48명)이 예선과 준결승, 그리고 결승을 거치며 러시아어 실력뿐 아니라 토론주제에 대한 지식과 토론능력을 겨루었다. 영예의 대상에는 고려대, 연세대 혼합팀 '민보(민보)'가 수상하였고, 부상으로 러시아 왕복항공권과 체재비



일부가 제공되었다. 금상은 한국외대 혼성팀 '글로빌리(Глобили)', 은상은 연세대, 한국외대 혼합팀 '까끄 젤라(Как дела)'가 수상하였다. 이밖에 동상과 장려상, 플로어상, 심사위원 특별상, 참가상 등 참가자 모두에게 푸짐한 상품이 제공되었다. 또한 입상자들은 추후 주한 러시아대사관에 초청되어 "주한 러시아대사와의 대화"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처음 개최되었지만, 예상외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러시아어 토론대회는 참가자들이 실제적인 언어 운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인과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러시아어 및 러시아 문화에 대한 학계 및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러시아연구소 홍완석 소장은 지난 6월 8일 인천시 새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303회 '새얼아침대화'에서 "21세기 한·러관계 - 역사적 응축과 양국관계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는 각급 기관장, 사회단체장, 지역사회 원로 등 인천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새얼문화재단은 지난 1983년 지역사회와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시민들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시민문화재단이며, 1986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얼아침대화'는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조찬모임이다.

HK 연구사업단 제5차 워크샵

2011년 5월 26일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은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에서 "국제학술지 창간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상환 교수(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운영위원회 위원장)를 초청하여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학술지 「Region」 창간 준비과정 및 발전계획에 대한 정하경 HK 교수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국제학술지 창간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이상환 교수의 조언이 뒤를 이었다. 이상환 교수와 HK 연구진들은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에서 발간되고 있는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창간 및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Region」의 창간방향, 편집진 구성, 출판 계약, 우수저널목록 등재 등에 있어서의 현안과 그 구체적 해결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011 대학생 러시아어 서머스쿨

2011년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은 13박 14일 일정의 '러시아어 여름캠프(서머스쿨)'를 개최하였다. 국내 최초로 러시아에 가지 않고도 러시아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기획한 이번 행사는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에서 진행되었다. 원어민 강사들과 24시간 함께하며 러시아어만 사용했던 이번 여름캠프에서, 참가자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러시아어로 말하고 러시아어로 생각한 덕분에 실력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은 체스게임, 러시아 음식 만들기, 러시아 노래 배우기, 원어민 강사 등 실제상황을 재현하며 문화체험을 한 것이 이번 행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어 여름캠프에 참가하기를 기대하였다.

홍완석 소장, 인천시 새얼문화재단 특강



HK 연구사업단 6차 워크샵

2011년 7월 1일 HK 연구사업단은 용인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5호에서 제6차 워크샵을 가졌다. 11명의 HK 연구진이 참석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HK 연구사업 3년차를 앞두고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다음 1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HK 연구진은 학술활동 일정을 점검하였고, 연구

결과물 출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작년 현지조사를 마친 북서관구 연방주체와 관련하여 ‘러시아연방총서’와 좀 더 깊이 있는 논문들을 담은 ‘학술연구총서’ 등을 출판하기로 하였다. HK 연구사업단 전체가 힘을 모아 진행되는 사업 외에도 HK 연구진 개개인의 연구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동유럽발칸학회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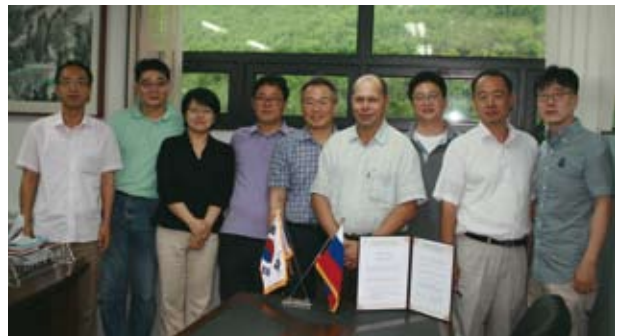
2011년 7월 11일 러시아연구소는 한국동유럽발칸학회, 캐나다 앨버타 대학 우크라이나·캐나다 민속학연구센터, 그리고 한국의 대 동유럽발칸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발칸, 중동부 유럽 포스트소비에트 체제 변환 20년 (Two Decades Later: Post-Soviet Transformation in the Balkans and Eastern and Central Europe)”이라는 주제로 캐나다 앨버타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8개국에서 40명의 학자들이 참가한 이번 학술회에서는 과거 동유럽 및 러시아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분석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학술회의에 참가한 러시아연구소 홍완석 소장과 송준서 HK 교수는 각각 “우크라이나 대외정책 규정의 구조적 요인과 동학”과 “포스트소비에트 프스코프의 새로운 상징 - 올가 공후”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본 학술회의 기간 중 홍완석 소장은 캐나다 우크라이나 연구소(Canadian Institute of Ukrainian Studies)를 방문하여 연구소 간 향후 학술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연구소 운영전략, 연구소 시설, 출판물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향후 외국의 우수 연구소와 학술협력 및 네트워크 마련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한국언어문화센터와 양해각서 체결

7월 14일 HK 연구사업단은 ‘글로벌 학술협력 네트워크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한국언어문화센터 소장인 쿠르바노프(S.O. Kurbanov) 교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두 연구소는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및 학술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박사급 연구원 및 학생 교류, 발간물 공유, 자료교환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 쿠르바노프 교수는 러시아연구소의 초청으로 작년 9월 강연을 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홍완석 소장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할 당시 이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측의 지속적인 교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 국제학술회의

2011년 8월 2일부터 13일 동안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은 ‘2011 러시아교육자 한국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러시아 교육자들은 한국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고 역사유적지 및 산업현장 방문, 문화체험, 한국인가정 방문 등을 통해 강의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제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러시아 교육자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러시아 연구소가 중심이 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8월 4일 ‘러시아교육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5호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2명의 한국 측 발표자와 3명의 러시아 측 발표자가 러시아와 한국 내 양국 이미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러시아 교육,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교육의 변화라는 주제로 연단에 섰다. 발표 후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었다.

국제학술회의 공고

- ◆ 주 제 : 20 Years On - Post-Soviet Russian Politics: Ideologies, State Systems, and World Strategies
(포스트소비에트 20년과 현대 러시아의 정치공간: 이데올로기, 국가체제, 그리고 세계전략)
- ◆ 일 시 : 2011년 12월 15~16일, 오전 10시
-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애경홀
- ◆ 주 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소련 해체 20년을 맞아 오는 2011년 12월, 정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그동안 러시아연방의 체제전환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러시아를 포함해 총 6개국 16인의 학자 및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가하여, 총 5개 주제발표 세션을 통해 체제이행기 러시아 정치공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추후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 이메일 등을 통해 공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에서 'Russia · CIS Focus' 칼럼투고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주 발행하는 'Russia · CIS Focus' 칼럼은 러시아 및 CIS 지역의 정치 · 경제 · 사회영역뿐 아니라 어학 · 문학 · 예술 등 모든 영역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주간 인터넷 칼럼입니다.
러시아와 CIS 지역에 관련된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편집부의 검토를 거쳐 실리며, 소정의 고료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이 지역 정보를 갈구하는 동학제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 형 식 : 한글 기본화면, 11포인트, 2페이지 내외
- ◆ 내 용 : 러시아 · CIS 지역에 관련된 글

- 홈페이지 참조 : www.rus.or.kr
- 보내주실 E-mail : hkirs@hufs.ac.kr
- 문의전화 : 031-330-4852

항상 소중한 옥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기존의 Russia · CIS Focus 칼럼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Russia · CIS Focus
칼럼투고안내

슬라브 研究

논문투고안내



「슬라브 研究」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동유럽과 러시아 및 CIS지역의 어학, 문학,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분야에 관한 참신하고 깊이 있는 연구논문을 실고 있습니다.

- 『슬라브 研究』 발간일 : **12월 30일** (제27권 제4호)
- 논문 투고 마감일 : **10월 20일**

「슬라브 研究」에 기고를 원하시는 동학제헌께서는 논문 제출기한에 맞춰 본 연구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논문 투고요령과 심사규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 시 필수기재사항

- 1) 논문 영어 제목 및 초록
- 2) 논문키워드(국문5개, 영문5개)
- 3) 관심분야 3가지(국문)

- 홈페이지: www.rus.or.kr
- e-mail: irspress@hanmail.net
- Tel: 031-330-4895

항상 왕성한 학문적 성취를 기원드리며 소중한 옥고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 研究」 편집위원회 드림.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